

# 국회 '예산전쟁' 돌입... 지역화폐·민생토론회 예산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립 "AI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 증액 검토" 민주당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예산 늘리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3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체수 부족은 세계적 경기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에 맞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은 충분히 챙기고 미래 먹거리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는 '가성비 높은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납세자들 주머니를 털어 생색을 내면서

자신들의 선거와 미래만 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당 국정감사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예산의 경우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마을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원은 김 여사가 과도하게 개입한 예산이라고 보고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태세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이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중·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시, 광천터미널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 확정 백화점 확장-터미널 사업 병행 추진, 공공기여 등 조건 제시 광주시세계, 조건 수용 본협상 곧 착수...6개월 내 마무리 방침

광주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8월 광주시세계에서 광주시에 제출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사업계획)'를 검토한 뒤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요 협상조건을 자문했다. 광주시세계 사업계획에는 1단계 신세계백화점 확장(2026년~2028년), 2단계 문화·상업·업무·교육·의료시설과 특급호텔을 갖춘 터미널 복합시설 조성(2028년~2033년), 3단계 주거복합시설 건립

(2033년~2037년) 계획이 담겼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운영,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 협상조건을 확정된 뒤 광주시세계 측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조건은 ▲사업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사업 병행 추진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 제시 ▲터미널 이용객 편의성 극대화 ▲광주만의 특색있는 복합용도 도입 ▲대중교통·안전·보행자 중심의 교통 개선대책 마련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세계는 이날 이 같은 '광주시의 협상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접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시세계 측이 협상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하고, 6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광주시와 민간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제안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양측의 이해 교환, 실질적 협상 시행,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천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공공성·투명성·신속성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광천권역의 교통문제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도민 납득할 투명한 공천시스템 만들겠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영광·곡성 선거는 윤정권 심판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혁신"



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면 의회 간 경쟁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호남 재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이어졌다. 도당위원장으로서는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0·16 재보선 영광·곡성 군수 선거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는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전남 재선거를 총지휘한 주 의원은 지난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의 변화가 잦은 속의 태풍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전남 재선거를 평가한다면?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도구로 유일한 대안 정당인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지역민께서 그동안 자식처럼 생각해 왔던 민주당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민주당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도민께 증명해 내겠다. -영광 군수 재선거의 경우 투표자의 58.92%가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유와 대책은? ▲영광군민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보내주셨지만, 그 기대에 민주당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영광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이번 영광선거 과정에서 당 차원의 기본소득 중심의 정책협약식과 한빛원전 1·2호기 연장 문제에 대한 단계적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소득과 지자체 예산 지속 확보할 수 있다는 민주당만의 차별 정책을 발표했다. 질책이 격려로 바뀔 때까지 성과를 도출 해내겠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워크숍을 전남 도·시·군의회 당 원내대표들과 진행했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혁신은 의회 원내 대표 위상 강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내 대표 중심의 의원총회 활성화, 위원회 간 협력 강화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혁신의 열쇠라고 본다. 이러한 의회 활성화가 자치분권 역량 강화의 선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하다. 현재 당에서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의회 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시대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보완에 보완을 거쳐 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제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며 약속했던 것이 바로 투명한 공천 시스템 확립이다. 전남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시작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다. 국민을 향한 헌신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호남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야당 경쟁'을 했다. 향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들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경쟁 이전에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다. 전남도민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향해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함께 뚫을 뚫어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운영 방향과 이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전략 등은 있는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성공시켜 내는 것이다. 기후와 산업을 살릴 에너지고속도로, 햇빛바람 연금,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민주당의 정책이다. 그것을 전남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거 기간 중앙당 차원에서 영광과 곡성의 기본이 보장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성사시켰다. 영광과 곡성에서부터 성공시킴이 정책들이 전남도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한 마디? ▲이번 영광·곡성 재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압도적 승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반성하겠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 민주당의 변화가 잦은 속의 태풍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